

다구를 찾아서 ⑩ 홍차

“애국자는 차를 마시지 않는다”

흔히 미국인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가 커피라고는 하나 홍차 역시 미국인의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독립전쟁 발발의 원인이 홍차였기 때문이다.

17세기 초 뉴욕의 이름은 뉴암스테르담이었다. 영국인 허드슨(Henry Hudson)이 처음으로 탐험했지만 네덜란드의 의뢰로 행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식민지가 됐다.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그들의 수도를 본따 뉴암스테르담이라 불렀다. 이때에 네덜란드인들은 처음으로 신대륙에 중국의 차를 전했다. 그런데 1664년 영국이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뉴암스테르담은 뉴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영국인들은 항상 모국의 유행을 주시하면서 모방하고 영국인다운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차 역시 영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자 그대로 따라 했다. 식민지 미국에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차를 독점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차값이 금값처럼 비싼데도 불구하고 커피하우스, 티가든 등 영국식 풍습은 물론 차에 관련된 다구(茶具) 역시 그대로 유행했다. 당시에는 다구가 부족해서 대화(茶會)에 초대된 손님들은 자신의 다구는 물론 스푼까지도 가지고 갔어야 했다.

유럽에서 7년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 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캐나다를 식민지로 갖게 되지만 전비(戰費)를 너무 많이 지출해 그만 국고가 텅비게 됐다. 이에 영국 국왕 조지 3세(George III, 1738~1820)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식민지의 방위비는 식민지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관세의 징수를 엄하게 했다. 1767년 5월 영국의 회에서 타운셴드 법안(Townshend Acts)이 가결돼 마침내 차에 대한 과세가 결정되자, 미국인들은 영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인다. 더불어 미국인들은 홍차 대신 라브라도르 티(Labradore 섬에서 자생하는 나무뿌리로 만든 차), 싸스프라스 티(Sassfras tea) 등 여러 대용차를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홍차 수출은 줄어들지만 네덜란드로부터의 밀수가 많아졌다. 1773년 마침내 영국 의회는 관세 없이 차를 미국으로 수출해도 좋다는 “차조례”를 가결했다. 그리하여 차를 가득 실은 네 척의 배가 대서양을 횡단해 보스턴 항구에 도착했지만 그동안 차 밀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미국 상인들을 중심으로 항의 집회가 열리고 그 결과 소요가 일어났다. 1773년 11월 16일 저녁,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선박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스턴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미국 독립전쟁의 발화점이 됐다.

중전 직후까지 미국인들은 “애국자는 누구도 차를 마시지 않는다”며 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후, 미국 사람들은 중국과 차 무역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인들 사이에 차가 주요한 기호품으로 정착돼 있었고 차를 제외하면 중국에서 돌아오는 배를 채울 화물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차 무역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서 더욱 번성했다. 1870년에서 1897년 사이에 미국의 1인당 차 소비량은 정점에 이르렀다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공업화와 더불어 이주해 온 많은 라틴계 이민자들에게 의해 홍차보다는 커피가 많이 소비됐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중국과 직접 무역을 시작했을 때, 중국인들은 도자기에 그들의 전통적인 문양을 그려 넣었다. 하지만 상술에 능한 중국인들은 이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과의 교역 경험을 살려 미국인들이 원하는 문양을 넣어 도자기를 만드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진 속의 홍차다기세트와 커피세트는 벤자민 추의 아들인 벤자민 주니어가 중국에 살고 있던 사촌에게 부탁해 주문해서 만든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는 저녁 식사를 마친 남성들은 식당에서, 여성들은 응접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남성들이 다시 응접실의 여성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밤 9시 이후에 홍차를 마셨다고 한다. 홍차에 설탕과 우유를 듬뿍 넣어서 늦은 밤까지 차를 즐겼다.



커피와 홍차다기세트(부분), 19세기 초, 사뮤엘 추 콜렉션(Philadelphia, 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백기란 bdaol@hanmail.net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40 송광사 저녁예불



풍경소리 하나 없는 송광사. 비가 내리고, 당 빈 마당엔 비에 젖은 백일홍이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다. 목어를 스쳐간 바람이 서쪽 해를 따라가고, 짙어가는 저녁 끝에서 법고소리가 들려왔다. “지심귀명례...”

법당은 대중의 숨소리로 뜨거웠고, 오늘을 기다렸던 눈발들이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고 있었다. 두근거려던 법고소리가 대중의 가슴 속에서 다시 두근거렸고, 목어를 스쳐간 바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심귀명례...”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도 제대보살여제천중설법장엄도

삼화는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관각한 설법도이다. 도상의 오른쪽에는 붓다가 높은 대좌에 앉아 좌우로 시립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다. 중앙에는 설법하는 붓다 앞에 엎드려 청법하는 사리불의 모습이 보이며 사리불의 뒷면에는 설법을 듣고 있는 제 보살과 제석천을 비롯한 천중, 제 비구, 천왕들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 왼쪽부터 전개돼 있다. 전개에는 난간이 둘러져 있으며 전각의 바닥에는 문양이 새겨진 돌이 아름답게 놓여 있다. 또한 전각의 외곽으로는 구름과 가로수가 장엄돼 있다. <불설아미타경>에는 이와 같이 설명돼 있다.

“한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금고독원에 계셨고, 덕망이 높은 큰 비구대중 1250명도 함께 하셨습니다. 대아라한은 모두 아는 장로인 사리불(지혜제일)과 마하목건련(신통제일), 마하가섭(두타제일)과 마하가전연(논의제일), 마하구차라(문답제일), 아바다, 주리반타가와, 난타, 아난타(다문제일), 라후라(일행제일), 교범바제(계율제일), 빈두로바라타와 가루타와와 마하갑빈(나지성수제일),

박구라(장수제일), 아누루타(천안제일)와 같이 큰 제자들 함께 있으셨다. 또 보살마하살인 문수사리 법왕자(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부처가 될 보살들을 이르는 말이며 특히 문수, 미륵보살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와 아일다보살(가장 수승하다는 뜻이며, 미래의 구세불인 미륵보살을 지칭), 건다하제보살(현겁 16존 중의 하나로 향상보살·불가설보살 등으로도 부른다), 상정진보살(현겁 16존 중의 하나, 언제나 정진의 힘을 써서 불여진 이름이며 남방 4존 중 제 2위의 보살로 대정진보살이라고도 한다)과 같은 큰 보살들과 함께 있으셨다. 또 석계 환인(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의 임금인 제석천을 이름) 등 무량 제천 대중들과도 함께 있으셨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인 16아라한과

문수보살을 비롯한 보살대중들과 제석천을 비롯한 천인들에게 설법하는 장면을 통해 부처님과 청법대중들이 설법으로 소통하면서 펼쳐지는 깨달음의 장엄함이 시공을 초월해 우리의 현실에서도 느껴지는 장면이다.

대부분의 불경에는 이러한 장면이 권수도(卷首圖)나 변상도(變相圖)라 하여 불경의 맨 앞쪽에 한편의 드라마의 서곡과 같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변상도를 불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찰에서 교리공부 시간에 그림을 해석해 가르친다면 불경을 처음 접할 때 나오는 제자들이나 보살, 제석천의 생소한 이름으로 인해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불경을 호감을 갖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 2도 제대보살여제천중설법장엄도(諸大菩薩與諸天眾說法莊嚴圖). 덕수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8.2×21.0cm.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100대 한정판매.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한 평상. 벤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주)현대에너지텍 2010년 최신행. 농협농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